

# 그저 악도 선도 다 놓고 근본에서 다시 생산해서 써라

☞ 25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려던 곳으로 각각 흩어져서 벌여 오되, 벌여 오게 되면 이 금덩어리가 중한 줄 알 테니 바로 그때 나누기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각각 나갔어요. 망형은 어디로 가다 보니까 농부가 소를 끌면서 농사를 짓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보수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해 줬어요. 그대 농사 다 짓도록 몇몇 일을 해 드리니까 그 노인이 "참 고맙습니다. 스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노비로 은전을 그득하게 줬거든요. 그대, 그걸 가지고 부리니까 형님은 달려왔어요. 벌여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그때 나누자고 했으니까 벌여 가지고 왔어요.

둘째는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논바닥이 전부 갈라져서 모심은 게 영 피지를 못하니 그 농촌 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요. 비가 안 와서 올해 농사가 이렇게 안됐으니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동네에서 자연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아 놓고 불구덩이를 만들자 이랬죠.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수지! 네. 그것도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예요. 만날 그렇게 말하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받게 되면 농사도 다 지을 수 있으니 동네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뻘 저수지라는 말이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크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눈에 물이 다 들어가게 해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돈을 모아 줬어요. 그대, 둘째 형도 돈을 받아 가지고서는 또 절로 달려왔어요.

또 셋째는 가다 가다 보니까 어느 도시로 떠억 가게 되었는데, 임금이 신하들한테 코끼리의 근수를 달아 오라고 명을 내렸대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야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예전에 말씀해 드린 서춘보 스님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리 돌아가면서 머릴 짜내 봐도 도대체 그런 저울은 세상천지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고을 저 고을 찾아다녀도 그것을 달 사람을 영 찾지 못하니까 이제 머리를 짜내고 죽겠다고 드러누워 있는 그 마을에 이 스님이 간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집을 저렇게 곡기를 끊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저분이 정승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라든가 뭐 내무장관, 외무장관 이런 분들이겠지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인제는 다 그냥 안으로 문을 잠그고선 죽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그 셋째 스님이 가서 그런 겁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렇게 죽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죽을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코끼리를 달아 볼 방법이라도 연구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서 미음이라도 잡숫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는 그 스님은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었대요. 그리고 배가 잠기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봐 가지고 금을 그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코끼리 대신 모래를 그 금 그어 놓은 데까지 배가 잠기도록 갖다 넣고 그 모래의 근수를 다 달아서 그분한테 알려 주었

려니까 고양이 반쪽은 동당 것으로 삼고 반쪽은 서당 것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 말이랍니다. 추우니까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을 피고 자다가 한쪽 다리를 다 데었거든요. 그랬으니까 동당 맑은 스님네들이 약을 발라 주고 형견으로 치매 줬거든요. 그랬는데 추우니까 아궁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그 형견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채로 이리저리 뛰다가 사방에 다 불을 붙여 놔다 이 겁니다.

그러니 동당도 타고 서당도 탔다 이 말이지요. 다 타 버리니까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당에서는 동당을 나무라고 동당에서는 서당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스님이 가다가 그걸 봤거든요. 들어 본 즉, 동당과 서당으로 갈라서 공부하던 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반쪽은 동당, 반쪽은 서당 것으로 삼았는데, 동당으로 돼 있는 쪽의 다리가 불에 데어서 형견을 치매 주

어서서 그 술가락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정 어정 또 갔습니다. 절에 떠억 가 보니까 위의 형님들은 다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 형제가 다 모이니가 그 법촌 스님이 "무촌 스님,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무촌 스님이 망형더러 "그래, 이 금을 지금 나눠야겠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여 왔으며 이 돈을 벌고 난 뒤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고 물었거든요. 망형은 "돈을 이렇게 벌여 보니까 그거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하고 물으니가 "저는 그저 허망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왜 허망하냐?" "그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할 게 없이 그저 모두 고생들을 하고 사니, 내가 살고 싶지 않고 전부 허망하게만 보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예."

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곤 했죠.

그런데 사제법, 팔정도, 사무 사유의 뜻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 돌아가는 이 자체가 아주 귀중한 겁니다. 없다는 것은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없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능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력, 충성, 의리, 도의, 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 가정에서도 통솔력이 충만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지혜로운 통솔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도량에서도, 도량도 크게 치면 전체지만 작게 치더라도 이 도량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겁니다. 지혜롭고 자비스럽게 통솔한다면 바로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비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상대의 몸을 통해서 나를 다지는 그 감사함이죠. 이걸로써 우리는 참 영원한, 잠시잠깐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저 은혜의 별성이 저렇게 운행되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마음들이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의 별성들이 모여서 무리를 짓고 짓고 또 지어서 돌아가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사상에 관한 건이요,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 사상의 불성! 해야 할 수 없는 사상의 불성 말입니다.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거, 이 사상이 따로따로 차원대로 무리를 짓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묘한 줄 아십니까? 큰 벌이 하나 떨어졌으면 우리의 큰 일꾼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조그마했을 때 벌을 쳐다보고 난 그랬습니다. "벌 하나 하나, 벌 둘 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이 다 가곤 그랬죠. 내가 영무새 노릇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영무새일 뿐이고, 이 말 자체가 말이 아니라 바로 법이 되어 모두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닿고 감음이 됐다면 이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스승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오관을 통해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러요.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은 참, 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또 청해다가 맡기고 스님에게는 나라의 일을 보라고 하니 그 스님은 지금 제일 바쁜 일이 한 가지 있어서 그러지 못하겠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가 바쁘냐고 그러니까 지금 절에 들어갈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나라의 일보다도 절에 들어갈 일이 바쁘다는 거죠. 삼촌님, 법촌님, 무촌님을 모시고 해야 할 바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내리니까, 그 스님은 상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안 보내 줘서 나중에 오기로 약속하고서야 돌아갈 수 있었더라고요.

이건 바로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서 옛날에 들은 얘기를 거기다 첨보한 겁니다. 이거 실지로 얘길 해야죠? 참 재밌는 거예요. 또 막내 스님이 어느 절에 가니까 고양이를 놓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스님네들이 동당이니 서당이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거기를 거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양이 하나를 가지고 나누

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요리조리 뛰면서 동서당을 다 태워 버렸으니, 동당에서 서당을 지어 달라 이거죠. 동당 고양이 반쪽짜리가 저쪽 서당까지 태워 놔오니 서당까지 지어 놔라 이거지요. 인제, 너희가 물자를 다 대서 절을 지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이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습기가 짝이 없거든요. 아주.

그래서 스님네들하고 같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서당의 다리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동당의 다리 둘이 움직여졌겠느냐. 그러니 이 서당의 두 다리가 부족을 해서 전부 태운 거니까, 허허허... 오히려 이 두 다리는 차면 다리요 이 두 다리는 성한 다리니, 서당의 두 다리가 동당까지 태워 놔오니 그러면 이쪽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만 싸우던 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서당과 동당이 한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동당 서당을 다시 짓도록 하는 게 어땠겠느냐고 잘 마무리를 해 주고 떠나니까 스님네들이 너무 고맙다고 참, 값나가는 술가락 하나를 주더라고요.

을 했습니다. "제가 전자에 갈 때에 금이 현재의 나에게도 있건만 그조차, 내 금도 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벌여 온 금이 바로 제가 벌여 온 금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했거든요. 자기가 금은 벌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막내는 그저 별떡 일어나더니 "이래도 합장, 저래도 합장." 하더니만 그냥 앉아서 아무 소리 않고 합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촌 스님이 이따 하는 소리가 "참 장하구나! 참 너희들 장하구나!" 그랬대요.

그러니 그 사 형제가 어떻게 해야 한 형제로서 화목하고 그 사 형제마저도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 형제는 어떻게 해야 금도 없고 사 형제도 없고 무촌 스님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느냐 이 소립니다. (잠시 사이) 왜 삼촌 스님도 법촌 스님도, 또 무촌 스님도 그 사 형제 스님들도 전부 없느냐는 얘깁니다. 왜 이 스님도 없고 저 스님도 없고 모두가 어찌서 없느냐는 얘깁니다. 전부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는 없어졌더니 말입니다. 그건 과

\*위 법문은 1988년 7월 1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